

희망의 5·18, 세계 속에 빛나다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대학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방정환 선생의 선한 외침으로 제정된 ‘어린이 날(달)’이 있는 5월은 ‘아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또한 ‘담양 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춘천 마임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많아 갈 곳도 볼 것도 많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로 자연과 하나가 되기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게 하고, 검붉은 색과 진한 향기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장미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지닌 철쭉도 공원 화단을 장식하고, 나무마다 싱그러운 초록 잎이 무성해져서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눈이 저절로 시원해지고 모든 감각이 즐거워지는 날들이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구나 싶다.

이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5월이지만, 깊은 숨을 내쉬 때면 가슴 저리고 비통함에 젖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처절했던 민주화 항쟁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17일,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탱크와 총으로 무차별하게 짓밟았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필자의 어린 두 눈에 새겨진 그때의 모습, 어둠 속 몇몇 장면들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양림동, 기독교병원과 전남도청이 가까웠던 지역인지라 총알이 날아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헬리콥터 날개 돌아가는 거친 소리를 매일같이 들었다. 한 번은 총소리가 어찌나 가깝던지 깜짝 놀란 어머니가 두꺼운 이불로 방문을 꼼꼼하게 둘러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낮, 덕석에 덮인 채 리어카에 실려 이승을 떠나는 이들도 목도(目睹)했었다. 또 피와 땀으로 얼룩진 교련복에 머리띠를 질끈 묶고 육공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민주시민 여러분, 지금 도청으로 모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던 청년들의 절규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1980년 5월 27일, 운상원 열사를 비롯한 시민군 150여 명의 전남도청 최후항전을 끝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 참으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5·18 현장을 취재한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 기자가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 서도 그날을 기록했다. 우리 독일인이

제2차 세계 대전 때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는 것처럼, 5·18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훗날 인터뷰를 했었다.

그럼에도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나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또는 해프닝으로 선전, 왜곡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로 마흔네 번째를 맞이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다. 어느 누구의 5월이 아니고, 또 광주만의 5월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대동의 5월인 것이다. 아픔과 슬픔, 못된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자유, 인권, 평화라는 거대담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회성의 이벤트나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새로운 메타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에 광주는 영화 ‘택시운전사’를 비롯한 오페라 ‘박학사탕’, 뮤지컬 ‘광주’ 등 수많은 문화예술 작품들과 유·무형 자원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광주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된지 오래다. 이미 광주의 5·18은 세계의 역사가 되었다. 이제 광주의 5·18 정신은 희망이고 빛이다.

社說

“초심 잃지 않는 희망의 신문 약속한다”

오늘 전남일보 지령 1만 호

전남일보가 21일로 지령 1만 호를 맞았다. 지난 1989년 첫 창간호를 낸 지 35년 4개월여 만이다. 공간은 그 자리에 그대로지만, 어느 덧 한 세대가 흐르고 바뀌어 버린 시간과 환경, 의식의 변화가 무상하다.

1989년 1월 7일, 전남일보 ‘창간사’의 주제는 ‘민주와 진실, 지방시대’였다. 독자를 향한 다짐도 ‘우리 모두의 귀, 우리 모두의 눈, 우리 모두의 입, 우리 모두의 숨결이 되어 정의의 이 땅에 2000년 대의 희망으로 태어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표로 삼았던 2000년대의 한 가운데 선 지금, 다시 한번 창간의 뜻을 되새기며 그동안 힘이 되어준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남일보는 조선내화 창업주인 고성욱 이훈동 회장과 전남일보의 주춧돌을 놓은故 승정 이정일 회장이 천명한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社是) 아래 누구보다 공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지역민과 함께 해 왔다고 자부한다. 신문다운 신문,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 진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용기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한 소명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국내·외의 수많은 현안에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는 신문,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문이 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전남일보가 쓴 1만 호의 역사야 말로 이훈동 회장이 창간사에서 언급한 ‘진실하고 정의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실천의 연속이었다.

전남일보의 역사 진실 향한 여정

짧은 시간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역사도 써 냈다. 당장 창간호의 1면 머릿기사처럼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전남일보의 잇따른 특종은 그동안 숨겨졌던 5·18의 정신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기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만들어낸 수많은 특종들도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 정책에 맞서 ‘지역개발’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시키고,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기획도 전남일보의 자랑이었다. 여기에 영산강부터 무등산과 광주천, 서남해안 바다까지 광주·전남에 산재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시리즈는 환경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기후변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언론의 공기능을 강화하는 ‘공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도 열었다. 올해까지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것도 전남일보의 모든 경쟁력을 상징한다. 전남일보의 지난 35년이 단순한 전남일보의 역사를 넘어, 80년대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성장해 온 광주와 전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땀과 눈물, 아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지역의 역사이면서 백서였다.

“지금의 성과 끝 아니고 시작”

하지만 지금의 성과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남일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MZ세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로 성장했다. 이제 전남일보도 이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해 갈 것을 약속한다. 미래학자들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종이 신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인터넷과 모바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플랫폼을 다양화시켜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성장’에 있다.

우리는 1989년 1호 창간사에서 ‘민주적 삶을 추구하고, 권위주의와 독단을 배격하면서 보편성을 존중하겠다’고 천명했다. 35년 여 전 전남일보가 추구했던 가치도 ‘날선 비판과 선한 영향력’이었다. 어느 덧 1만 호를 맞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고, 그 사실의 뒷편에 담긴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긴다. 미래 우리 앞에 펼쳐질 더 큰 세상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기후위기부터 양극화 해소, 생태계 보존, 평화까지 인류를 위한 더 큰 가치도 실현해 가겠다.

지령 1만 호라는 짧지 않은 시간, 애정 어린 질책과 관심을 잃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남일보도 창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콘텐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담긴 신문을 약속한다. 오늘의 지령 1만 호라는 전남일보의 작은 발견음이 앞으로 다가올 지령 2만 호를 넘어, 10만 호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조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재벌 회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질의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명성을 떨치게 됐다.”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선의원 시절 소개골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폐기와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고 이후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자리에 올라섰다.

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임기에 들어간다. 18명의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를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국회에 갓 입성하는 새내기 조선의원들의 마음가짐은 더욱 남다를 것이다. 22대 국회 지역 조선의원은 광주 7명, 전남 4명 등 11명에 달한다.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번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의 주된 요인

으로 작용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이고, 과거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나 어느 순간 변방으로 내몰렸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22대 지역 의원들이 존재감을 발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선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선수(選數)’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당찬 모습을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슈 발굴과 실현에 주력한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밀착해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내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적 의제를 제시한다면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지역 조선의원들이 변방에만 머물며 정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한낱 정치신인에 불과할 뿐이다. 부다 지역의 원들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해 호남정치의 부활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